

· 방학을 이용한 임상 연구 학생과의 경험 (Clinical Research)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나 군 호

2003년 6월 비뇨기과학교실로 복귀한 후 교실 내 막내로서 여러 가지 업무에 익숙해 질 무렵 연구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분자생물학교실의 김재우 교수와 이야기 하던 중 우연히 방학 때 의대생을 학생을 모집해서 임상실습도 하고 환자 data를 이용한 clinical research를 해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김교수는 학생 모집에 대해 간단한 원칙도 알려주었는데 수업시간 전 20분전에 학년 교실에 직접 찾아가 모집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이유는 그 이전에 등교하는 학생이 대개 적극적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양승철 주임교수 이하 모든 교수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비뇨의과학연구소의 기금을 지원받아 학생들에게 소정의 실습비도 줄 수 있게 되어 2003년 12월 첫 학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실 강사나 전공의의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인력 탓만 해서는 논문 등 교원으로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어려웠던 현실에서 방학 때 누가 자료를 정리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에서도 의대 1학년과 4학년 실습지도를 한 적이 있는데 모두 Ivy League 학부를 졸업한 학생

들이었고, 우리 학생들도 이에 못지 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우리 학교에서도 mentorship program과 유사한 방식을 도입해 보고자 하였다. 형식은 총 4주간의 program에서 첫 주는 회진, 수술, 외래, 모든 conference 참석 등에 이은 임상 입문과정을 거치고, 2 3주차에서는 지정된 연구주제를 가지고 의무기록을 분석하고 자료를 입력하는 업무를 한 후에 마지막 주에는 다시 임상 실습을 해서 그 동안 하던 노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상에 적용된다고 직접 느낄 수 있게 계획되었다. 의무조항은 아니었지만 학생들의 선배인 전공의와의 비공식적인 만남(주로 회식)도 빠짐없이 학생들이 참여해서 앞으로 의사로서의 생활을 실제로 맛보기 할 수 있는 자리도 주선하였다.

2년간 본과 1,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후 올 여름부터는 광혜세교육 과정에 따라 본과 방학이 없어지게 되어 예과 1, 2학년을 대상으로 자원자를 선정하였으며, 이번 겨울에도 좋은 자원을 만가는 것이 설레게 된다. 가르치는 것이 가장 많이 배운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최고의 "Young able mind"를 직접 만나고 어떻게 자라왔으며, 어떤 포부를 가

지고 생활하는지는 보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많은 격려가 되었다. 진료 업무 때문에 소홀하기 쉬운 faculty로서 후배들에게 이전에 선배들로부터 배운 것을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학생들의 노력으로 학회 발표나 논문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은 처음 근무를 시작할 때 자칫 소홀하기 쉬운 논문작성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므로 다행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을 만나서 열려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지속되면 좋겠으며, 우리 학생들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과대학 학생들과 경쟁해서도 탁월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Clinical Research-urology department

새로운 일은 언제나 배움을 준다. 이번 겨울 방학 동안 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에서 실습한 4주 동안의 경험도 나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Clinical research를 시작한 첫날, 그 새로운 경험의 시작은 나에게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해주었다. 한시도 쉴 틈 없이 바쁘게 움직이시는 선생님들, 수술실에서의 긴장감, 외래 환자를 볼 때의 예의와 수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 하루하루가 나에게 새로운 순간이 배움의 연속이었다.

아침 7시에 시작되는 회진을 따라 돌면서, 병실을 이동하는 시간마저 아까운 듯 보이는 선생님들의 모습은 나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나의 생각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다음

학기부터는 더욱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또한 나군호 선생님의 배려로 여러 수술에 참관할 수 있었고, simple nephrectomy, TURB, 결석제거술, testis의 hydrocele 제거, ureter stricture가 있는 환자의 수술들을 보면서, 수술 방법을 비롯하여, 수술하시는 선생님들의 긴장감과 고도의 집중력을 느낄 수 있었다. 옆에 비록 assistant로 서있었지만, 수술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의 집중력과 체력이 떨어지는 걸 느꼈고, 이제 나에게 있어 체력이란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맡길 환자들의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운동도 꾸준히 계속하고, 식습관도 좀 고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또한 외래 환자를 보면서도 의사는 거만함을 가지는 직업이 아니라, 정말 봉사하고, 병에 대한 가르침과, 병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직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비슷비슷한 병으로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관심을 가지는 의사만이 모든 환자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저 멀리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내가 세브란스에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는 것을 처음 느꼈으며, 나 또한 그 길을 이어갈 만한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약간은 부담으로 다가왔다.

일주일간의 짧고도 많은 가르침을 주었던 병원 실습이 끝나고, partial cystectomy와 radical cystectomy 자료들을 정리하였다. 언제 처음 발견을 하여, 수술 전의 상태와, 술 후의 상태를 비교하였고, 수술을 한 후 어떤 방사선 치료나 화학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상태를 기록하는 일이었다. 매일 반복되는 작업을

약간은 지루하기도 하였지만, 나의 기록 하나 하나가 수술 전후 상황을 일반화 시키는 자료에 쓰인다는 생각에 다소 설레이기도 하였고, 책임이 느껴지기도 하였다. 아직 내가 정리한 자료가 어떠한 idea를 가지고 어떠한 주제의 논문으로 탄생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개의 환자를 보는 것 못지 않게 그 자료들을 일반화시켜 다음 환자들을 위해 쓰여질 거라 생각하니, 그러한 data들도 환자들에게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어렵פות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나군호 선생님께...

아직은 본과 1학년인 저에게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병원에서 여러 가지 자원 봉사 활동과 아산 병원과 삼성 의료원에서의 일보다 짧았지만, 3주 간의 이번 실습이 아마 저에게 더 소중하게 느껴졌던 건 다름아닌 선생님의 배려 덕분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병원 여기저기서 일하면서, 학생이란 존재는 없어도 되는 존재라는 생각을 받을 정도로 배려나, 책임감은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 실습을 통해서 제가 일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서인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선생님의 모습에서 의사란 환자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나의 길을 이어 갈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이 환자들을 다루는 태도와,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책임감과, 소명감은 바로 현재 의사 선생님들에게서 배울 테니까요.

그리고, 선생님의 적극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의사 소통이 늘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선생님의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의사란 의학적인 실력만으로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앞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면, 제가 더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실습을 통해 아마 제일 큰 소득은 선생님들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저희 교실에 오셨을 때, 레지던트가 아니라 교수님이 직접 오셨다는 것에서부터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아서, 망설임 없이 지원을 했는데, 실습 기간 동안 깨어있는, 열려있는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대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교외 활동을 하면서, 의사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mentor가 될 만한 선배 의사 선생님들 찾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선생님의 노력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받아들이려는 모습, 그리고 적극적으로 환자들과 간호사, 여러 병원 관계자 분들에게 대하는 모습을 가슴 속에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가르침 감사 드립니다

제2기

Clinical Research 학생 모집

방학 중 외과계인 비뇨기과 진료를 체험하고 논문작성 등 향후 academic clinical research를 목표로 하는 진취적인 학생을 만나고 싶습니다.

- 내용회진, 수술 및 외래진료 참여
- 논문 작성 및 학술 발표

- Clinical research 담당 등
- 실습기간: 4주 (조정가능) / 소정의 실습비 지급

미국의 Johns Hopkins 의과대학생이 방

학기간에 담당했던 clinical research curriculum에 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앞으로 Academic/Faculty tract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환영합니다.